

글로벌전주, 한류의 중심지로 도약

중남미에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소개... 페루 제1방송국 아메리카·아리랑 TV 방문

한류의 중심지이자 2017 FIFA U-20 월드컵 개막도시인 전주가 한류 열풍 지이자 축구열기가 뜨거워 중남미에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소개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페루 제1방송국인 아메리카 TV와 국제 TV 방송사인 아리랑 TV는 14일 전주를 방문해 한옥 마을 등 대표관광지와 비빔밥과 한지 등 전주의 문화를 촬영했다.

당초 페루 아메리카TV는 평창 동계 올림픽 촬영을 위해 방한했으나, 한국 문화 및 관광지 소개를 위해 전주를 촬영지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남미 페루의 제1방송국인 아메리카 TV와 국제 TV 방송사인 아리랑 TV가 14일 전주를 방문해 한옥마을 등 대표관광지와 비빔밥과 한지 등을 촬영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가운데)이 촬영팀을 맞이하며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손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선왕실과 전주의 역사 이야기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기도 한 전주의 대표음식인 비빔밥을 소개하고 한지원에서는 전통한지 제작 과정도 살펴봤다.

결론으로, 막걸리체험 프로그램도 이어져 단순 여행지로서의 결합기시 촬영이 아닌, 전주를 진정한 한국의 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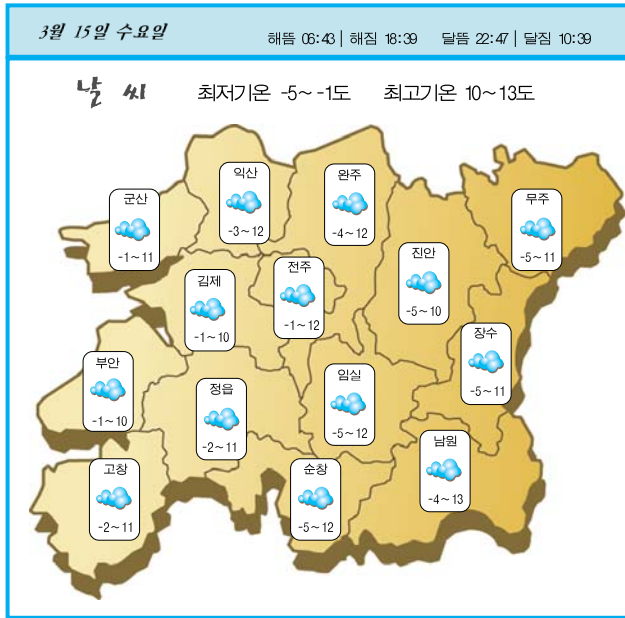
간직한 테마가 있는 도시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중남미 방송국 및 아리랑 TV의 촬영 방문은 전주가 서울 등 다른 대도시들보다 가장 한국적인 대표도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전주의 문화와 관광, 역사 등 다양한 모습이 페루를 포함한 아리랑 TV 송출 국가에 알

려진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외신과 국제기구, 영문 SNS(www.facebook.com/gdajonju) 등을 활용해 해외에 전주를 한문화의 중심지이자 글로벌도시로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도교육청, 8기 학생기자단 모집

23일까지 초6학년 이상 총90명

전북도교육청이 제8기 학생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평소 글쓰기와 기 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내 초6학년 이상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모집기간은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초·중·고 학교 급별로 30명씩 총 90명을 모집한다.

지원 희망자는 자기소개서와 사진을 첨부해 행복한 교육소식 홈페이지(http://news.tje.go.kr)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하면 3년간 지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4월초에 한다.

올해 제8기 전북교육청 학생기자단은 월건 이상의 기사 작성을 하게 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기자교실, 각종 체험학습, 학생기자신문 제작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연말에는 우수 학생기자에 대한 보고회와 시상식도 있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QS 학문분야 평가 9개 분야 '우수'

기계공학·화학공학 등 세계 2백위 초반 순위권... 공학 분야 높은 경쟁력 증명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최근 발표한 2017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 결과 전북대학교 기계공학화 화학공학 등 9개 학문 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6개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기계공학과 화학공학이 세계 2백위 초반에 순위를 올린 것을 비롯해 재료과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이 2백위권 중후반에 랭크되며 공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와 함께 물리학 및 천문학과 생명과학, 의학, 컴퓨터 과학 및 정보시스템, 화학 등이 세계 학문 분야 순위권

(2백~4백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대학 순위에서는 화학 13위, 재료과학 14위, 물리·천문학 16위 등 자연과학 분야가 12위를 기록했으며, 기술공학 분야에서는 기계공학 11위, 화학공학 13위, 전기·전자공학 14위 등 종합 1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종합대학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학문 분야를 순위권에 올린 것이다. 거점 국립대 가운데서는 18개 학문 분야가 포함된 부산대와 12개가 포함된 경북대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 평가는 영국 QS가 전 세계 4천여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평판도와 줄

임성 평판도, 교수당 피인용도,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H-인덱스 등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모두 46개 학문분야별로 세계 5백위까지의 결과판을 발표했다.

이남호 총장은 "이번 평가는 우리대학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월드클래스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단순 성과를 뛰어 넘어 학문 분야에서도 우리대학만이 갖고 있고, 우리대학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학부모 책모임 마중물샘 교육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책 읽는 문화 조성 및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 책모임 마중물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달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주중부도서관에서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동자 및 유망험자 1백명을 대상으로 총 9번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책모임 마중물샘 교육은 24일부터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4월 17일(월)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의 내가 살아 되는 독서를 시작으로 작가 및 도서평론가 등이 강사로 초청되어 총 9차에 나누어 열린다.

/정해은기자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조례 공포

전북도교육청이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향후 수영교육예산 안정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수상 위기능력 대처 능력 향상은 물론 수영장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도교육청은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전북도내 학생들의 수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

상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전북도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조사 △단위 학교의 수상안전교육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수상안전교육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전북도지사, 시장·군수와 협조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상안전교육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사의 교육현장 지도와 수상안전교육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은기자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자'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